

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

- 9월 22일부터 전국 주요 공항 출발-제주공항 도착 서비스 양방향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한국공항공사(사장 윤형중)는 오는 9월 22일부터 ‘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’를 확대·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 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·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로,
 - ’21년 7월 시범사업(김포 출발→제주 도착)을 개시한 후 ’22년 7월부터는 도착 공항은 제주로 한정하되, 출발 공항을 전국 권역별 5개 공항(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·광주공항)으로 확대·운영해왔다.
- 이번 ‘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’의 확대로 전국 5개 공항과 제주공항 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고, 5개 공항 중 운항 노선이 있는 공항(김포 ↔광주, 김포↔김해)에서도 양방향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빈손 여행이 가능해졌다.
 - 배송 서비스는 서울, 부산, 청주, 대구·경산,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고,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예약 누리집(www.airportbag.co.kr) 또는 짐배송 업체* 누리집에서 서비스 예약이 가능하다.
 - * 검색 포털에서 “지니고 지니케어”(도착 공항: 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·광주) 또는 “짐캐리 에어패스”(도착 공항: 제주) 검색
-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“이번 서비스 확대가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짐 없는 편리한 항공 여행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 - “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여 여객 편의성을 높이되, 항공보안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준상 (044-201-4232)
	항공보안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정윤 (044-201-4238)
	한국공항공사	책임자	부 장	이봉희 (02-2660-2302)
	랜드사이드운영부	담당자	담당자	전새움 (02-2660-2306)

□ 사례

[A씨 가족의 사례]

- ▶ 가족여행으로 제주공항을 자주 방문하는 A씨,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도착 수하물을 직접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 서비스를 애용한다.
-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A씨 가족. 봄비는 승객들 틈에서 짐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여행에서 얻은 좋은 추억마저 사라지는 기분이다.
- 문득, "돌아가는 여정에도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?"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.

□ 이용방법

- **(예약방법)** ① 통합예약 또는 ② 짐배송 업체 별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
 - ① **통합예약 누리집(www.airportbag.co.kr) 접속 후 도착공항*에 따라** 짐배송 업체(서비스) 선택 및 항공편, 희망 배송지 등 입력
 - * 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·광주: 오씨엘(지니고) / * 제주: 짐캐리(에어패스)
 - ② **검색포털에서 "지니고 지니케어(도착 공항: 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·광주) 또는 짐캐리 에어패스(도착 공항: 제주)"** 검색 및 예약 누리집 접속 후 항공편, 희망 배송지 등 입력
- **(서비스 신청)** 출발 하루 전까지
- **(이용요금)** 기내용 캐리어 1.5만원, 대형 캐리어 및 골프백 등 2만원
- **(배송 가능지역)**
 - 김포공항: 서울 전 지역 / 김해공항 : 부산 전 지역
 - 제주공항: 제주도 내 전 지역 / 청주공항 : 청주 전 지역
 - 대구공항: 대구·경산 전 지역 / 광주공항 : 광주 전 지역
- **(위탁방법)**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짐(수하물) 사진을 찍고(정면·측면·수하물 꼬리표 등) 짐배송 업체 모바일 웹 또는 접수 링크를 통해 업로드 후,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위탁